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BETTER PEOPLE BETTER WORLD



머릿글 (주)오픈옥션 회장 이금룡

4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ombudsman 안충영

커버스토리 (주)교보문고 사장 권경현

## 책이 희망입니다

리더십이야기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양병무

지자체특강 마디병원 명예원장 하권익

발행인편지

마켓&트렌드

회원 & 연구원소식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기자의 눈 여의도통신 대표기자 정지환

머니에세이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 우승택

문용린칼럼

표지인물 권경현 사장 / 사진 오경근 원장

# 4

2008 April

등록번호: 000000 [매체명]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8년 4월 1일 (사)인간개발연구원 발행인: 장민기 편집: 정영달 디자인: 이재경 pas@khdj.or.kr 주소: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3500(4선) F.2203-1974 www.khdj.or.kr (주)인간개발연구원



# 아기는 온몸이 '코' 다!

알고계세요? 잠자는 아기는 온몸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



## 황사철, 자연가습까지 챙겨야 건강한 공기청정기입니다 케어스 자연가습 공기청정기

청정필터를 거친 깨끗한 공기가 가습필터를 통해 습기를 머금게 되고, 자연 가습방식으로 실내에 골고루 퍼집니다  
항균 가습필터와 국내 최초 SIAA ISO 공인인증 항균수지로 더욱 건강한 실내공기와 실내습도-  
케어스 자연가습 공기청정기 하나로 가족건강을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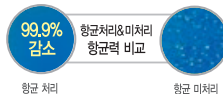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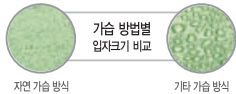
황사의 계절,  
웅진케어스가  
황사마스크를 드립니다  
편할하우스 및  
크리올 통해서 배포



### 공기청정과 자연 가습을 동시에! | 세계가 인정하는 항균력 - 세균격정끝

- 공기청정과 가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연 가습식 가습
-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가 자연 상태의 습도를 제공하므로 눅눅함이 없고 가습 효과가 멀리까지 전달되는 자연 가습식 가습 시스템

- 국내 최초 SIAA ISO 공인인증 항균 수치 적용,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패렴간균 99.9% 항균 효과
- 탈착 및 청소 용이, 이동시 물 넘침 없는 항균수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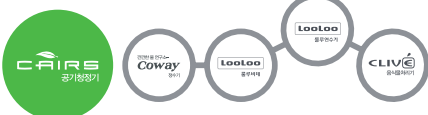
가족의 건강을 위한 4가지 건강 맞춤형 필터 • 황사전용필터 • 유아전용필터 • 새집전용필터 • 헌집전용필터

NEW 자연 가습 공기청정기 AP-0807DH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한 웅진케어스의 우수성



■ 제품 렌탈 및 구입 문의처 1588-5900, 02)757-7591, 031)705-0866, 02)511-1234, 02)522-8627, 02)727-4230, 031)235-9888, 02)727-4242, 02)2217-3322, 031)298-0251, 02)566-4075, 041)522-6173, 053)257-6446, 051)647-5152, 051)463-0380, 042)486-1500 ■ 렌탈하우스 : 1588-9995 ■ 특판문의 : 1588-0352 ■ A/S신청 및 코드 채용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88-5900(주말 휴일도 신청 가능) ■ 품질보증기간: 1년 제품 하자 발생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청약의 철회) 2,3 항의 의거 환불, 교환 ■ 웅진코웨이 고객센터 사이트 [www.sheswell.com](http://www.sheswell.com)을 방문하세요/ 다양한 무료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이마트 51개점과 하이마트(일부제품)에서도 웅진코웨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조] [www.coway.co.kr](http://www.coway.co.kr)





# 다시 벤처정신을 생각한다

이금룡 (주)오픈옥션 회장

**얼**마 전에 세계 제일의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찬이 한국을 다녀갔다. 순진하게 생긴 대만 출신의 이 젊은이는 채드 헐리라고 하는 페이팔 동료와 함께 무료동영상사이트를 개발하여 2006년 10월, 구글에 무려 1조6천억원에 매각하고 현재는 최고기술책임자로 있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벤처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성공스토리가 쓰여지면서 억만장자가 생겨나고 있는 이 용광로에 최근 들어서 한국인이나 한국계 기업인의 성공스토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0년 즈음에 유리시스템의 김종훈 설립자, CNET에 거액을 받고 매각한 마이사이먼의 양민정, 윤여길씨, 그리고 존경받는 기업인인 암백스그룹의 이종문 회장 이후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이렇다 할 한국계 기업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IT산업도 덜 발달되었다고 하는 대만계는 야후의 제리 양을 비롯하여 스티브 찬, 1조 이상의 자산가인 Eclair Group의 제럴드 슈, 나스닥에 상장한 네트워크보안의 트랜드마이크로 설립자인 스티브 창 등 본고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2006년 실리콘밸리에서 새롭게 창업한 회사 가운데 인도 출신이 25.8%, 일본이 13.6%, 중국이 13.6%이며, 대만이 10.6%, 독일이 4.5%, 이스라엘이 3%인데 비하여 미국에만 250만이 거주하고 있고, 세계 최강의 IT강국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계의 창업회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경우 해외파 대부분이 중국에 돌아와 창업을 택한다는 점이다. 중국 최대의 검색사이트인 바이두의 로빈 리나 최고의 포털사이트인 시나닷컴의 설립자인 왕연 등도 모두 유학파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유학파의 성공적인 창업스토리로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제 글로벌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본고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유튜브의 모델도 우리나라의 판도라TV를 베낀 듯 한 생각이 들고, 마이스페이스닷컴도 사이월드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야후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지식 검색 ANSER도 우리나라의 지식검색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모델을 만드는데는 앞서가고 있지만 이를 글로벌 모델로써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고장인 실리콘밸리에서도 통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과 현지 문화에 맞는 새로운 창업정신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기업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유력한 한국계 기업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한국민족이 강력한 IT인프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뛰어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언한 바 있는데, 본고장인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계 벤처인들의 성공스토리가 들려서 국내의 창업을 꿈꾸는 젊은 이들에게 자극도 주고 해외에 진출하려는 벤처기업들의 가고 역할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민간주도로 경제의 중심을 가져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글로벌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들이 화답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KB**



이금룡 회장

1951년 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제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77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유통부문 마케팅 이사, 인터넷사업부장 이사 등을 지내며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인터넷 쇼핑몰인 삼성몰을 만든 인물이다. 99년 온라인 유통업체 (주)옥션을 창업해 성공하면서 온라인 유통의 새바람을 일으킨 '인터넷 전도사'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e마켓플레이스협의회 회장, 이니시스 사장, 넷피아 사장,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 대학경쟁력 강화, 왜 시급한가

제1543회 4월 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화의 목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달성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기반경제시대 소득 3~4만불 당성을 위해서는 지식창조형 인력을 양성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창의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의 핵심은 대학 교육에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대학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대학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은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2위로 평가받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대학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 없이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새 정부는 대학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시장개방, 산학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대입제도 자율화도 주목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교육부 차관을 거쳐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김영식 사무총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인재양성의 핵심인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美 피츠버그대 교육학 박사 |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 교육부 교육정책총괄과장, 대학 교육정책관, 고등교육지원국장 | 부산시 부교육감 | 대전시 부교육감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수상〉 대통령표창

〈저서〉 행정학의 기본문제, 논점행정학

## 4월 4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 결핍과 충만

제1544회 4월 1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삶이라는 것은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똑같다. 진정한 작가는 결핍의 실존을 직시할 때 탄생한다. 실존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위기의 상태이다. 우리가 자기의 존재를 뚜렷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위기가 오지 않고서는 자기 존재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작가 박범신, 그의 작가적인 삶은 어머니의 빈 젖이나 부러진 가위, 어머니 머리에 묶여 있던 대님 끝 같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게 되므로, 결핍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핍을 참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들은 마음속에 그리운 것이 적은 사람이다.

결핍의 본질은 결국 충만의 본질이다. 충만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자기 삶에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다. 작가들은 보통사람들보다 충만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한 사람이다. 자기가 부자유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유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자기가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은 상처 없는 사랑을 구하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든지 결핍은 있다. 문제는 자기 결핍을 풍향계처럼 예민하게 느끼고 자기 감수성으로 그 결핍을 벗어나고 싶은 그리움, 충만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한 사람이 문학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07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전격 발탁된 박범신 작가를 초빙하여 세상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충만된 세계의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박범신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원광대 국문학과 졸업 | 고려대 교육학 석사 |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여름의 잔해' 당선 데뷔 | 문화일보 객원논설위원 |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부교수 |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설분과위원장 | 한국소설가협회 운영위원 | 한국방송공사 이사

〈상훈〉 대한민국문학상, 제3회 원광문학상, 제4회 김동리문학상, 제18회 만해문학상, 제11회 한무숙문학상 외

〈저서〉 소설집 : 토끼와 잠수함, 흰 소가 끄는 수레, 향기로운 우물이야기 / 소설 : 죽음보다 깊은 잠, 풀잎처럼 높다, 불의 나라, 침묵의 집, 외동, 더러운 책상, 나마스테, 출라체 외 / 시집 : 산이 움직이고 물은 머문다



오갑수 SC제일은행 부회장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美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 1970~78 한국은행 근무 | 美 와튼경영대학 Teaching Fellow | 美 오클라호마 주립대 경영대학 교수 | 美 드렉셀대 경영대학 교수 | 한미경제회의 위원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부원장 | 대한금융공학회 회장 | Standard Chartered Bank PLC, London 특별고문

<저서> 현대투자이론과 실무(공저)

##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제1545회 4월 1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야기된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에서 시작된 신용위기는 주택업체와 금융업체 추가폭락과 감원, 소비심리 악화 및 감소, 경기둔화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를 침체 상태로 몰아갔다.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전 세계 신용시장의 손실이 약 1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는 지난해 9월 이후 수 차례 달러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있고,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미국의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는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식시장은 미국의 호재와 악재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원화 환율 또한 1000원 선을 웃도는 등 크게 요동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곡물가격 급등은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망조차 조심스러운 가운데 환율정책 및 금융정책은 경기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한금융공학회 회장으로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오갑수 SC제일은행 부회장을 초빙하여 세계경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에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내면으로부터의 지도력(Leading from the inside)

제1546회 4월 2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오늘날과 같은 혼란기에 사회나 개인이 겪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져다주는 압박감은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선택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그래서 직업에서 오는 압박감이 가족관계나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도 무력감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그런데 만일 남들이 이끌어야 할 리더 자신이 내적으로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사회는 자기관리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요구한다. 이제 외부 변화에 '대응'하고, 외부 상황이나 사람을 '통제'하여 목표를 달성하던 과거의 지도력 패러다임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외부상황을 유연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감성과 영성의 개발을 통해 자기 내면의 컴퍼스를 찾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직관력을 키움으로써 과학정보나 통계수치 등의 각종 지표들이 미처 보여주지 못하는 신호를 캐치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베스트 셀러 작가이며, 21세기를 이끄는 세 가지 주요 인자들인 감성적·영적 능력, 관리·지도력 개발, 평생교육을 독특한 방식으로 접목시키는 마이크 조지 릴렉세이션센터 창립자로부터 그 비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마이크 조지(Mike George)  
릴렉세이션센터 창립자

동기부여 강연자, 영성 교육자 | 지난 25년간 30여개국의 기업체 및 단체 지도자들의 영적인 발전을 이끌고 조력해왔음 | 릴렉세이션센터(The Relaxation Center) 창립자 | 영성지수단(The Spiritual Intelligence Unit: www.SpiritualIntelligenceUnit.com) 상임이사 | 옥스퍼드트리더십아카데미 연구원

<저서> 긴장을 풀어주는 25가지 연습, 25가지 상상으로 내 안의 평화 찾기, 스트레스 없는 삶, 자아경영의 비밀, 릴렉스 내게 필요한 완전한 휴식 외

제154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새 정부 출범과 신성장동력 육성전략

3월 1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안충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 ombudsman



**한** 국경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십자로에 서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경제발전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진국 신드롬에 빠져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세계경제 6위의 부국이었지만 페론 정권부터 연이은 좌파 정부가 경제정책을 운영하면서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이제는 IMF에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10년 전에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 대가로 4대 부문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별다른 개혁의 성과 없이 저성장이 수반되었고, 계속되는 구조조정, 구조개혁으로 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심리적 피로감마저 가져왔다. 그래서 중진국 신드롬에 한국도 예외 없이

함몰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분배 우선으로 가면서 구조개혁 피로증후군이라는 현상과 함께 성장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5%로 줄어들었다. 성장이 낮아지자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은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한국경제발전사를 보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대의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십자로에 선 한국경제

### 중국과 일본 경제 사이에서 샌드위치 심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경제 사이에서 심각한 샌드위치 현상을 겪고

있다. 중국은 13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그 큰 대륙에 걸쳐 전 산업이 우주속처럼 발전하고 있다. 노동집약, 자본집약, 기술집약이 동시에 약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발전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우주산업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미국, 러시아에 버금가는 제3의 국가로 성장했다. 또한 광동성에서 시작해 거대한 조선기지를 만들고 있고, 바이오산업에서도 한국을 앞서고 있을 만큼 첨단기술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서가는 영역이 많다.

중국에서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다. 이들은 이공계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인해전술을 쓰고 있다. 2002년 미국의 주요 이공계 대학 박사 학위 수여자 중 중국계 학생이 2천7백명이었다. 한국인은 7백명에 불과했다. 중국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와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일무역적자가 사상최대인 3백억불에 달한다. 도요타 자동차는 이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와 휘발유를 함께 쓰는 자동차를 상용화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한일경제협력에 이야기할 때마다 대일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철저하게 수평적 동반자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립가공산업은 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며,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면 대금을 바로 지불해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6개월, 1년 짜리 어음을 끊어주고, 원자재값이 오르더라도 절대 납품가를 인상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의 공생형 협력관계가 존재하는 한 국제수지 개선은 힘들다.

미국은 일본이 계열화 제도로 많은 중소기업자들의 참여기회를 봉쇄하는 폐쇄적인 산업조직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일본은 철저한 논리개발을 통해 일본형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존 공생하는 체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답습해야 하는 가장 모범적인 산업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특이하고 독창적인 계열화제도가 수평적, 협력적, 자금지원적 성격이 지속되는 한 쉽사리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새 정부 출범과 747정책 계속되는 대외 여건의 악재

이와 같이 십자로에 선 한국경제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7%씩 성장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불이 된다. 그렇게 되면 GDP 기준 세계 13위에서 7위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747정책'이 나왔고, 이것이 국민적 호응을 얻어 이명박정부가 출범했다.

신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고 747정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해방 이후 70여년 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OECD 국가 중 상위 소득국가로 진입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낙관적

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심각한 악재에 당면해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금융부실의 규모가 얼마나 큰 지 미국의 금융기관들조차 그 실체를 모르고 있다. 얼마 전 부시 대통령은 미국경제가 대형침체에 들어갔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가 나면서 불균형 체계가 커지고 달러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원화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율 불안은 결코 좌시할 문제가 아니다.

최근 유가가 110불 선을 넘어서고, 철근, 레미콘 등의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다. 또 각종 곡물 값이 오르면서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인 우리는 에너지 집약형의 생활패턴과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은 우리 경제에 큰 복병이 될 수 있다.

중국경제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10%씩 성장하다가 이제는 물가를 잡아야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바이플레이션의 주범이다. 특히 저임으로 상품을 만들어 세계적인 물가를 낮추는 동시에 엄청난 원자재를 구입함으로써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747정책은 밀고 나가야 한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대통령께 올린 연두보고회에서 원래의 운영목표를 6%로 잡고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3.3%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로 계속해서 흑자를 내온 경상수지가 올해는 75억불 정도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했다. 고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이다.

한편으로 성장을 부추기고 물가는 안정시키면서 환율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삼자간의 관계를 '마의 삼자관계'라고 부른다. 하나를 올리면 다른 하나가 상충되어 3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성장위주의 목표에 치중하기보다는 물가관리가 중요하다.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기업들의 투자에 매진토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정책적 순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 한국경제 저성장의 함정 빠져 잠재성장률 4%대 중반으로 추락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 나라가 생산에 가동시킬 수 있는 노동력의 총 스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87~97년까지 연평균 1.6%였다. 그런데 00~05년 사이에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87~97년까지 연평균 5%였는데, 0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2.9%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니까 소비와 투자가 함께 연출하는 내수의 성장률 기여도도 8.9%에서 3.4%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8%선을 유지하다가 5%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4.5% 중반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 가지고는 정부가 제시하는 7% 성장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과제이다.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현상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런 만큼 외국기업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경제 선진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자 35.8%(87~97년)에서 2.9%(00~05년)로 줄어 들었다. 강성노조, 고임금 등으로 인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외국인 직접 투자율은 2.8%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율의 절반 이하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크기가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다. 그나마 많은 대기업들이 수백조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그냥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활성화가 일어난다면 자본스톡의 증가율은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촉진해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릴 것인가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경제성장률 제고 과제

### 법과 원칙 준수, 투명성 확보와 규제 혁파

경제성장률은 자본스톡 증가율, 노동스톡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란 자본과 법과 제도가 얼마나 잘 운용되는지, 대학이 R&D역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어떤지 등의 요소가 연출하는 성장 기여분을 말한다. 노동스톡 증가율은 대단히 한정적이다. 자본스톡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5% 올리고자 한다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자체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고야 한다. 자본스톡 증가율 자체도 새로운 기술이 체화된 신규 자본재와 설립투자가 고급인력과 함

께 합작되면서 일어날 때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고 자본스톡 증가율에 기여할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관행을 지향하는 제도개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교육, R&D 등이 합해질 때 총요소생산성은 올라간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소위 '떼법'으로 인한 손실을 많이 입었다.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2006년에 28등, 2007년에는 27등이었다. 국책사업이었던 새만금, 천성산터널 사업은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시작했다가 진행과정에서 이런 저런 반대 때문에 중단되었다. 이처럼 연기된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4조원 이상의 국비손실이 발생했다.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인명손실, 상해, 시설물 파괴, 노동손실 일수와 같은 직·간접 피해도 크다.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한국은 불법노조가 난무하는 나라라는 대외이미지가 각인 되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제도적 환경개선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이 개선되었지만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라 할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복제, 제작, 유통을 관리하지 않으면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다.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에게 무역분쟁을 제기할 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 만큼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히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도 다함께 반성해야할 문제점이다. 이제는 투명성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비자금 조성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기업도 투명한 경영 관행을 정착시켜야 노조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덩어리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어떤 규제는 다른



부처, 시행령, 고시 등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규제를 풀자니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아예 다 없앤다는 규제개혁법 혹은 일몰제를 동원해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기도 한다.

현재 8천5백여개의 규제가 있는데 상위법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밑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많은 것이다. 회색지대에 있는 법이나 고시, 행정령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프로비지니스, 프로인베스트먼트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와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투자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기여해 준다면 규제완화의 성과를 빨리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수도권 공장총량제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06~08년까지 370만 평만 공장을 건립하도록 공장부지 상한제로 묶어 놓았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총량제만 풀어도 대기업들의 대형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 미래의 먹거리 될 성장동력 찾아야

### 전통 우위산업에 IT BT NT 퓨전효과 극대화해야

지금부터 우리는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조선, 철강, 반도체 같은 세계 1위에 있는 부문에 IT, BT, NT가 융합되는 퓨전효과를 촉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크게 없다. 계속해서 성역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 없는 이 영역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 지식기반 서비스 개념이라는 것이 미적, 감성, 레저가 포함된 굉장히 창의적인 美·感·遊·創의 지식기반 경제형이다. 한류도 이 가운데 하나로 여기서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15대 제조업 관련 전략산업을 인수위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다. 주력산업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금속소재 등 7개가 포함 되어 있고, 미래유망사업으로는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 컨버전스, 차세대 의료기기 등 4개, 기반기술에 나노기반, 생산기반, 정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기술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라고 발표됐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성장영역이 바로 에너지환경 관련분야이다. 연료 전지, 환경복원시스템, CDM, 수소에너지, ECO소재부품, 대체에너지 개발 또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등이다. 21세기는 대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나라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술 체화된 설비투자, 고급인력양성, R&D인프라 구축이라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완하고 창출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R&D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R&D인프라에, 기업인들은 기술취합투자에, 교육계는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인력을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는 3박자가 어우러져야 신성장동력이 탄력을 얻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 동시다발적 FTA가 신성장동력 확충

### 서플라이 체인 현상 잘 활용하는 나라가 발전

신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동시다발적인 FTA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작년 4월에 타결된 한미FTA는 이제 양쪽 국회에서 비준만 해주면 발효된다. EU와의 FTA도 5차 협상이 완료되고 금년 안으로 EU 24개국과 FTA가 완결되도록 시나리오가 짜여 있다. 현 정부가 이를 승계하여 미국과 FTA를 하루 빨리 매듭짓는 것이 747정책을 풀어나가는 핵심이 될 것이다.


FTA가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미와 한EU가 동시에 타결되면 한국경제는 짧은 시간 안에 0.48%의 추가성장이 일어난다. 소비자 후생수준도 30억불 추가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투자환경 개선으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대한국투자 러시가 일어날 수 있다. 더불어 한EU까지 발효되면 40억불의 FDI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스톡 증가율의 부족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

세계 도처에 한국기업들이 나가 있다. 그런 만큼 외국기업이 들어와 줘야 한다. 이런 것이 글로벌시대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현상이다. 이 현상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효과적인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데 있다.

맞춤형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747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회기 내에 한미FTA가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경제가 침체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큰 시장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FTA를 계기로 과학기술 측면에서 전략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혁신주도 경제성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면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선진국가의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747정책은 단지 비전이고 계량적인 목표이기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가다듬어야 된다.

기업(corpor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협력, 협동이다. 그리고 기업은 인간이 만들어 낸 자본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제도이다. 결국 노사가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면 원래 기업이 추구하는 태생적 목표에 순응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하면 인구가 적고 일본에 비하면 국력이 약하다. 하지만 소프트파워, 소위 지식을 가진 문화강국이다. 지식기반 서비스국가, 스포츠 강국,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시민이 살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비록 지금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여 있지만 당당하게 한국의 목소리를 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나라가 될 것으로 믿는다. 



책읽기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독서경영'이 최근 기업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독서를 통해 창조적 사고가 가능하고 창조적 사고가 조직발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독서가 조직에 확산되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경영관리기법이 바로 독서경영입니다. 21세기 창조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습득, 변화, 창의적 활용은 독서에서 기인하죠. 독서경영이 정착되면 조직구성원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직무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2002년 취임 후 꾸준한 독서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교보문고 권경현 사장의 말이다. 그는 '책이 희망'이라고 단언한다. 책이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감성과 지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심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보문고는 독서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책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책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기업으로서의 면모도 과시하고 있다.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책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권경현 사장을 만나 교보문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책읽는 즐거움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책읽는 문화가 창조경영의 지름길 책이 희망입니다

권경현 (주)교보문고 사장

교보문고는 국내 출판유통업계에서 부동의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81년 광화문점 개점 이후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1981년 개점한 이후 '거리의 도서관'이자 '도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현재의 위치에 있기까지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이기도 하죠.

교보문고의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광화문점 시대로 1990년대 후반까지 광화문점 단일 점포 중심의 영업을 하던 시기입니다. 중소형 서점들의 반발로 거의 20년 동안 광화문

점 중심으로 운영됐었죠.

두 번째 시기는 다점포 시대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해 영업점을 본격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해 대구, 부산 등 전국적 네트워크와 강남, 잠실, 분당, 인천 등 수도권 거점을 확보해 나가면서 현재 전국 14개의 지점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점포 시대와 함께 2000년 전후로 도서유통업계에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채널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혁명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바로 채널혁명에 맞춰 종이책의 유통채널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한 다채널시대라 할 수 있죠. 인터넷 보급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는 온라인 사업에 1997년 '인터넷 교보문고'라는 이름으

로 진출해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기는 상품혁명에 대응한 시기입니다. 급속하게 불어닥친 디지털혁명은 도서유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제는 종이책이 e-Book, 오디오북, DVD북 등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품변화에 대응하여 2004년도부터 디지털컨텐츠 유통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세계적으로 도서유통회사 중 온·오프라인 복합채널과 종이책과 디지털컨텐츠라는 복합상품을 통합적으로 사업모형화해 가는 회사로는 교보문고가 가장 성공적인 모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보문고는 단순한 도서 유통에서 벗어나 독서진흥과 평생학습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의 확장이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했던 비전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보문고를 단지 대형서점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교보문고의 설립 배경을 보면 남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창립자인 故 신원호 회장님은 청소년 교육에 뜻을 품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사람이 곧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청소년들을 인재로 키우는 데 많은 공을 들이셨죠.

교보생명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교육보험상품을 만들어 많은 가정에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교보문고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이 책을 읽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에 신장재 회장이 취임한 이후 선대의 창립이념을 이어받아 교보생명과 교보문고는 비전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이 때 교보문고의 업의 개념을 재설정하게 됐죠. 새롭게 정립한 업의 개념은 교보문고가 단순히 책만 파는 도서유통사업에서 책읽기를 권장하는 독서진흥사업과 일생을 거쳐 학습을 돕는 평생학습지원사업,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성공인생지원사업까지 그 경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즉,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구조화시키는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책읽는 가정만들기, 책읽는 학교만들기, 책읽는 군대만들기, 책읽는 직장만들기, 책읽는 지자체만들기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책읽는 사회, 책읽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는 국민 독서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신념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책읽는 직장만들기를 지원하는 '젠추어'라는 자회사와 독서경영연구소 등 독서교육사업부문을 별도로 만들어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책읽는 가정만들기

를 지원하는 독서코칭센터와 독서능력을 진단, 처방할 수 있는 READ 검사 등 많은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보문고만의 차별화 된 서비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보문고의 차별화 된 서비스로는 먼저 '복합지식문화공간'이라는 오프라인 영업점의 컨셉입니다. 서점을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닌 지식, 문화, 휴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으로 확장시킨 개념이죠. 지식서비스로는 다양한 도서 진열과 추천정보, 저자 강연회 등이 있습니다. 문화서비스로는 교보핫트랙스의 문구, 음반, 기프트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휴식서비스로는 성인 독서공간 티움, 어린이 공간 키즈가든, 만남의 장소인 북카페 등 전용공간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없는 책이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보문고가 지향하는 고객가치죠. 이 서비스는 향후 디지털화 된 도서 정보를 기반으로 절판도서 주문형 출판(POD)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북마스터 맞춤형'입니다. 북마스터는 고객에게 도서 추천은 물론 독서상담과 컨설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죠. 이들은 현장 실무 경력과 독서상담, 독서법, 독서코칭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는데, 현재 162명의 북마스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각 영업점에 '북마스터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상담과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세미나'입니다. 교보문고 북세미나는 동영상 도서정보로 저자가 직접 책을 소개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서정보와는 차별화 되죠. 경제경영서 뿐만 아니라 인문, 문학, 자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선정해 매주 2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맞춤도서 추천정보서비스'입니다. 책의 읽기 난이도와 독자의 읽기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 처방해주는 READ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죠. 'READ 독서력 검사', 'READ 어휘력 검사', 'READ 독서행동진단'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Lexile Score'를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공교육 기관 및 독서교육 전문업체에 보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문학기행'과 같은 문화서비스는 문화기업으로서의 역량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진행 예정인 주요 문화 서비스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교보문고 문화서비스의 컨셉은 고품격 문화체험으로 크게 '지식강좌형'과 '문화체험형'이 있습니다. 영상클래식아카데미는 대표적인 지식강좌

**권경현 사장**

1951년 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1973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기획조사부장, 인력개발부장, 영업기획부장,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쳐 사장을 역임했다. 2002년부터 교보문고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교보문고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다.



■ 上-지난 4월 진행된 '문화기차여행' 신경숙 편  
 ■ 下-지난 1월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된 '설국 문학기행'

형 서비스죠. 클래식 전문가가 한 음악가의 예술세계 전반에 대해 강의하면서 곡 감상은 물론 해설까지 곁들이는 형식입니다.

또 하나의 지식강좌형 서비스가 '낭독공감'입니다. 대산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낭독공감은 국내의 저명 작가를 초대해 작품 낭독과 문학관을 듣는 행사로 유명 배우들이 참여해 낭독의 재미를 높여 주고 있어요. 올해는 책과

떨어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문학적 향기와 감동을 전한다는 취지로 대학 캠퍼스에서 낭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면 문화체험형 서비스인 '문화여행'은 업계 최초로 진행한 가족단위 행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화기차여행, 문학기행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금년 1월에는 문학기행의 대상지를 해외로 확장해 대산문화재단과 함께 업계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문학세계를 체험하는 '설국 문학기행'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외 문학기행으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문학공간을 체험하는 '러시아 문학기행'을 준비중입니다.

### 독서경영을 주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지식기반사회를 벗어나 창조기반사회, 창조경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통기업과 우량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조직이 얼마나 창조적이나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기업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업으로의 창조적 변화가 가장 큰 경쟁력이죠.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아마빌 교수의 창조성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의 창조성 지수를 개발한 연구에 따르면, 그 핵심은 전문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공유하는가, 얼마나 창조적인 사고와 자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조직의 창조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조직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적 사고를 하고, 창조적 조직문화 속에 놓여 있는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책을 통해 지식 습득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개인에서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명 개인적 지식이 집단의 지식으로 발전하면 그 차원과 수준이 높

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책을 통한 지식의 습득, 지식의 변환, 그것의 창의적 활용 등에 대한 고민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독서경영입니다. 우리는 독서경영을 '창조성의 기본이 되는 개인 독서가 조직에 확산되고 공유되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오는 경영관리기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결국 독서경영의 핵심은 창조성을 향한 변화와 혁신이고, 그를 통한 조직의 성과창출 즉, 창조경영인 겁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지식융복합시대입니다. 이는 창조사회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창조사회는 고정적(stock) 지식보다는 그 지식이 다각도로 해석되고 재창조되는 융복합지식, 또는 플로우(flow)로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융복합은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 얻는 아이디어를 조직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독서경영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경영관리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독서경영이 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CEO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책 읽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보다 책임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CEO가 먼저 책을 가까이 두고 즐겨야 직원들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자신이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밤 1시간, 주말에는 3~4시간씩 책을 읽죠. 창조와 혁신의 화신으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의 영감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와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사업가인 리카싱은 매일 밤 역사, 경제, 철학 등의 책을 읽습니다. 국내에서도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 등 많은 CEO들이 독서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죠. 책임기가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책 읽는 분위기를 전사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CEO와 임원들이 먼저 책을 읽은 후 직원들과 돌려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직에 책 읽는 분위기가 전파되고, 서로의 생각도 공유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임원과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독서토론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독서토론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책 읽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임원과 부서장의 독서토론회가 정착되면 중간관리자 단계로 확대해 나가고, 또 초급관리자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느새 독서경영이 정착될 것입니다.

넷째는 독서경영을 위한 시스템 제공입니다. 우선 계층별, 직무별로



■ 권경현 사장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선정해 주는 것도 독서경영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북마일리지제도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우수사원 보상제도, 책 구입비용 지원 제도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독서경영이 조직에 정착되면 직원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직무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교보문고는 독서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인 젠추어를 통해 RBL(Reading Based Learning)과정을 제공하고 있어요. RBL과정은 교보문고 독서경영연구소와 젠추어에서 제시하는 독서학습 모형을 교육 프로그램화 한 것으로, 읽기 기반의 학습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개발하고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교육비의 80~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현재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보급 및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모닝CEO'라는 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 리더들에게 독서경영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주세요.**

바쁜 CEO들에게 매일 아침 빠르고 엄선된 신간 도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조적 긴장감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북모닝CEO'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북모닝CEO 서비스는 현재 일부 회원들에게만 이메일을 통해 매일 아침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죠.

주제 도서 한 권과 연관 도서 3권이 메일을 통해 소개되는데, 주제 도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하여 경제경영, 인문,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간략한 전문가의 도서 소개를 통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1천종 이상의 신간 중에서 교보문고 북마스터와 100여명의 외부 전문가(북멘토)가 엄선해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서비스 단계이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도서 분야를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형식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독서의 의미와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모든 문제가 교육에서 시작되고, 그 해답 역시 교육에 있다는 말처럼

그 기업에 맞는 추천도서 리스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는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고민

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이 희망이다' 즉, 책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요즘 젊은 세대의 게임중독이나 정서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화의 부정적 영향이죠. 이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감성과 지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여 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책읽기죠. 책읽기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만큼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읽기는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아기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준 덕분에 독서영재로 자라난 예가 국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읽기의 가치는 알고 있지만 정작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습관화되지 않은 책읽기의 경우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독서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독서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티머 J. 애들러가 제시한 것처럼 독서의 수준과 목적, 분야에 따라 읽기 방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독서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책 자체에 친숙함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도 필요하죠. 좋은 독서환경은 독서의 습관화에 기여하고, 습관화된 독서는 비전을 실현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사장님께서서는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사람에서 나온다는 연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그 동안 각 분야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포럼과 아카데미, 워크숍 등을 통해 인간개발 지식공동체를 만드는 등 성공하고 나누며, 베풀어 대접하는 인간중심 사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연구원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Better People Better World'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보문고 또한 'Better Books, Better People, Better World'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념과 비전의 측면에서 연구원과 교보문고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노하우와 장점들을 공유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l.or

# 창조경영과 섬김리더십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21세기에는 리더가 부하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며,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섬김리더십이 요구된다.”



일러스트 · 이재경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됨에 따라 창조경영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창조경영이 집중명칭을 받는 데는 <블루오션 전략>이란 책이 큰 몫을 차지했다. 유럽경영대학원(INSEAD)에서 나란히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2005년 2월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 국내 정·재계에 '블루오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 경쟁 없는 신시장 개척 위해서는 창조경영 필요

블루오션은 경쟁이 없는 시장이다. 레드오션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피투성이가 되는 경쟁시장을 의미한다. 블루오션 전략이란 가치혁신을 통해 경쟁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블루오션 창조자들은 경쟁자를 이기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비경쟁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쟁 자체에서 벗어난다. 블루오션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영이 필수적이다.

블루오션과 함께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은 2005년 11월 그룹사장단 회의에서 창조경영을 본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창조경영을 경영계의 최대 화두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조경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일류기업에서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가치관, 일하는 방법,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앞으로의 도전은 목표와 방향을 우리 스스로 찾고 설정해야 하는 창조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20세기 경영과 21세기 경영은 다르다. 20세기에는 물건만 잘 만들면 1등이 됐지만 지금은 품질에 별 차이가 없다. 21세기에는 여기에 디자인, 마케팅, 연구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2006년 10월 두바이를 방문하여 경영자들에게 "두바이처럼 창조적으로 경영하라. 지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가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모델로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각 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한 창조경영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삼성전자 최도석 사장은 "창조경영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그 가치는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며 "정보와 지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콩(정보)으로 메주(지식)을 만들고 숙성(사고)을 통해 된장으로 창출해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정의했다. 나아가 창조경영을 지식정보화시대를 이을 '제4의 물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섬김리더십 발휘돼야 창조경영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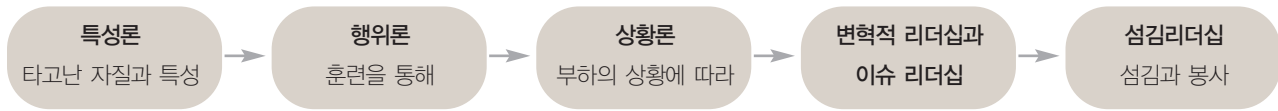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는 창조경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창조리더십에 관심을 갖고 구성원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창조경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먼저 창조경영은 리더십의 변화와 깊은 함수관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벽 없는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GE가 20세기 최고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1세기에도 주목받는 이유는 상사와 부하, 부서와 부서간의 벽을 허무는 수평적인 조직을 구축했기 때문에 창조경영이 가능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3년 동안 창조경영이 무차별적으로



## ★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바로 리더십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수직적인 조직구조였기에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명령과 통제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효율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창조경영에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대우받는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섬김리더십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그의 저서 <미래경영>에서 섬김리더십의 등장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지식경제시대에는 기업을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의 구분이 없어지며, 지시와 감독은 통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리더가 부하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조직원을 이끄는 기존의 리더십 패러다임 대신 리더가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며, 부하들과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섬김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창조경영과 섬김리더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한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인수위원회시절부터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섬김리더십을 줄곧 강조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 전통으로 사농공상의 뿌리 깊은 의식이 남아있어 섬기는 리더란 개념 자체가 어색해 보인다.

그래도 새 정부가 '섬김'을 국민을 향한 기본 자세로 들고 나온 것은 대단한 변화이며 발전이다. 정말로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국민을 섬긴다는 자세가 체질화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 섬기고 봉사하는 지도자가 21세기 리더

섬김리더십을 이해하려면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창기 리더십은 특성론에서 시작한다. 리더의 자질과 특성은 원

래 타고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행위론이 등장했는데, 리더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다. 이어서 리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는 상황론이 등장한다. 리더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부하의 상황에 따라 리더십 이론도 달라져야한다고 주장하여 리더십의 관점을 리더의 입장이 아니라 부하의 입장에서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등장한 이론이 변혁적 리더십과 이슈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란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에 의해 발휘된다는 이론이다.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이 바로 섬김리더십이다. 이 이론은 미국의 전화회사인 AT&T사의 로버트 그린리프 부회장이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도에 책을 출간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이 책에서 섬김리더십의 기본 개념과 철학을 제시하고 기업, 교육기관, 종교기관, 관료사회에서의 섬김리더십 사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섬김리더십이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종업원, 고객, 조직을 우선으로 여기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다. 즉, 섬기는 리더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지도자"라고 정의한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의 경우 구글, 사우스웨스트항공, 휴렛패커드, 3M, 인텔, 월마트 등을 비롯한 초일류기업들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섬김리더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섬김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숙명여대를 들 수 있다. 이경숙 숙대 총장은 섬김리더십을 표방하고 실천하여 숙대를 창조경영과 대학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이 총장은 개성이 강한 대학사회에서 네 번이나 직선 총장에 선출되었다. 4선 직선 총장에 추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섬김리더십의 위력을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

• 다음 호에 섬김리더십의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지자체특강

# 건강, 자신있습니까?

제81회 충북도청 '21C 청풍아카데미' 2월 28일(화)

하권익 마디병원 명예원장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생활습관병은 어떻게 예방하는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 최대의 갑부가 되었으며, 53살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55살에 불치병으로 1년밖에 못 살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어느 날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어서던 그는 병원 입구에 '소유보다 베푸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순간 그는 온 몸에 전율을 느꼈다. 사람들은 자신을 두고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과연 스스로 행복한 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마침 그 때 접수대에서 병원비가 없어 당황해하고 있는 가난한 모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비서를 불러 자신은 밝히지 말고 그들의 병원비를 지원해주라고 했다.

록펠러는 그 후 진단받았던 1년을 넘겼고 병도 완치되어 98세까지 살았다. 그는 눈을 감으면서 "나의 55년보다 그 나머지 53년이 더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회상했다고 한다. 세상을 살면서 베푸는 것을 나누어주고, 분배를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았던 록펠러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적으로만 건강했기 때문이 아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없는 것도 물론 건강이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다.

##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 만들어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정서적인 건강, 기와 혼이 살아있는 건강, 지적인 건강 등 세 가지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1월 개강한 이후 현재 매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21C 청풍아카데미'는 본원과 충북도청(정우택 도지사)이 공무원들에게 상시 학습기회를 제공해 창의적 행정 및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학습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청풍아카데미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과 충북도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충북의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2월 28일 "건강, 자신있습니까?"를 주제로 제81회 강연을 해주신 하권익 원장님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l.or.kr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해서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은 모두 행복할까? 아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다. 성공은 마음에 달려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 한 사람은 내 스승이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다. 동반자를 스승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또한 자연의 섭리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럼 가장 건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늘이 준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한 조직문화, 인간관계의 삶을 사랑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첫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 앞에 있는 가장 귀한 사람을 높이 봐줄 줄 아는 자세가 사랑이다. 둘째,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주고 못 사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시계는 아무리 비싸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맘이 없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뭔가를 배우려고 왔다면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다. 후자의 사람은 돈주고 못 사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넷째,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다. 다섯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듯 사랑은 세상에서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행위이다.

### 스트레스 없는 삶은 가치 없어

동물실험을 할 때 내시경으로 동물의 위를 들여다본다. 돼지의 경우 먼저 마취를 하는데, 귀 혈관에 한번에 마취제를 놓으면 돼지는 '퍽' 소리와 함께 조용히 잠이 든다. 그 때 위를 보면 위가 정말 뽕얇고 얇다. 그런데 마취가 서툴러서 여러 번 찔러 마취를 시킨 후 위를 보면 새빨갭게 변해서 터지기 일보직전이 된다. 성미 급한 돼지가 화가 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몸 전체에 나타난다는 말이다.

오래 살려면 뭘 많이 먹어야 할까? 물론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한다. 100살까지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70을 맞아서 '벌써 70이야, 80까지는 금방이겠네' 하고 한탄하면 절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나 70이 돼서 '목표달성이 돼가네, 이제 70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나이를 먹을수록 신나게 살고, 또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자기 주변에 신나는 일이 있는데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맛이 난다. 어떤 할 일이 자기 앞에 생기면 '아, 드디어 내가 할 일이 생겼네' 하고 힘이 불끈 솟는 사람과 '이게 왜 나한테 떨어졌어, 누가 안 가져가나, 이거 힘들겠네' 하는 사람과는 건강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북유럽에 가면 청어를 잡을 때 산 채로 판매하면 가격이 훨씬 비싸다. 그러나 산 채로 잡아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어떤 어부 한 사람은 줄곧 산 채로 청어를 잡아왔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수명이 긴 고기를 가져가서 청어를 잡으면 같은 통에 넣었다. 그랬더니 청어들이 처음 보는 고기를 피하느라 열심히 헤엄을 쳐서 부두에 올 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이다. 어부에게 잡혀서 죽었구나 포기했다면 스트레스는 없었겠지만 부두에 도착하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할까? 부부간에도 싸우고, 친구간에도 싸우고, 직장 동료간에도 다툰 일이 있을 때 나는 이것을 해보라고 한다. 1-일단 싸웠으면, 2-이 기려고 하지 말고, 3-삼갈 말은 삼가고, 4-사과할 일 있으면 빨리 사과해라. 5-오래 끌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스스로가 건강해질 수 있다.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1-일일이 간섭하려는 습관을 버리자. 2-이의를 다는 습관을 버리자. 3-삼삼하게 살자. 4-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지 말자. 5-오~ 하고 자꾸 감탄하자. 6-육체적인 스킨십을 자주 하자. 7-칠칠맞은 짓은 하지 말자. 8-팔팔하게 움직이자. 9-구구질질한 생각을 버리자. 10-열어라, 너의 마음을.

삼성병원장으로 근무할 때 사무실이 20층에 있었다. 아침에 출근해 20층까지 각 병동을 돌면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면 1시간 30분이 걸린다. 이 때 1만3천보를 걷는다. 아침에 운동도 하고 직원들과 인사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시간은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시간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다. 10분씩 여섯 번, 20분씩 세 번, 30분씩 두 번, 60분 한 번 운동을 해도 효과는 모두 같다. 틈 날 때마다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바로 '지금'에 최선을 다하는 삶 돼야

지적인 건강 또한 중요하다. 두 명의 친구가 정글에 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 한 마리가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친구가 갑자기 배낭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이를 지켜보던 친구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지. 운동화 신고 도망간다고 해서 사자보다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사자는 한번 사냥을 마치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고 쉬거든" 했다.

### 하권익 원장

1940년 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 1~2대 회장, 제15회 캘거리 동계올림픽 한국팀 의무,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회장,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대한골절학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스포츠의학회 인정의 1호, 국내 스포츠의학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제2~3대 삼성서울병원 원장, 을지대학병원 원장, 우리들병원 명예의료원장 등을 지냈다.

이것은 맹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다. 그럴 것에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도 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행동을 비난한다. 이젠 괜히 남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우리가 버려야할 모습이다.

삶이란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 결론도 사람이다. '결론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에 사람을 소급하면 삶이 된다는 것이다. 삶이란 바로 나와 더불어 지내는 사람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책을 보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오늘 같은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건강이다.

당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답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답하는 사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답하는 사람 등 지금 이 순간을 정말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 운동+절식=장수 ⇔ 건강심진법

쥐를 이용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쥐를 먼저 A, B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했고, B그룹은 A그룹 음식량의 60% 정도를 먹게 했다. 그리고 A그룹을 다시 운동을 하는 그룹과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눴다. B그룹도 운동하는 그룹과 절식은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 총 4그룹을 만들었다.

이 쥐들에 대한 수명 검사와 암 발생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A그룹 쥐들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그나마 실컷 먹고 운동을 했던 쥐들은 조금 낮았다. 이 중 가장 오래 사는 쪽은 B그룹의 절식하면서 운동을 한 그룹이었다.

주변에 보면 '오늘 운동했으니 좀 먹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유식으로 먹고 운동한 쥐와 같다. 중요한 것은 운동과 함께 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절식이 장수에 최고 방법이라는 얘기다. 예부터 '소식장수'라는 얘기를 한다. 소식하면 건강을 위한 유전자가 활동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운동 후 식사량 조절이 필수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운동은 말씀드렸듯이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시간 날 때마다 해서 하루 한 시간을 넘기는 것이 좋다.

내가 하고 있는 '건강심진법'이 있다. '1, 10, 100, 1000, 10000'이다. 1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마음속으로 '오늘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남을 위해 뭔가를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며 살자는 것이다.

10은 하루 열 번은 파안대소를 하자는 것이다. 세상에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이 75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인생에서 25년은 잠을 자고, 25년은 일을 한다. 또 25년 중에 6년은 화를 내는데 보낸다. 그런데

웃는 시간은 고작 48일이라고 한다. '하하' 웃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그치지만 화나있는 시간은 몇 시간씩이다. 화를 화로 대하면 두 배가 되고, 화를 사랑으로 대하면 제로가 된다. 하루 열 번 파안대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100은 하루 100글자 이상 직접 써야 한다. 천재의 머리보다 몽당연필이 낫다는 말이 있다. 직접 쓰는 것이 머리의 기억력보다 낫다는 말이다. 기억은 3일이 지나면 70%가 잊혀진다. 1000은 하루에 최소한 자기 눈으로 이해하는 천 글자는 읽으라는 것이다. 책을 읽으라는 것이다. 10000은 하루에 1만보를 걷자는 것이다.


사무엘 올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보면 '16세이든 60세이든 열정이 없으면 16세가 60세가 되고, 열정이 있으면 60세가 16세가 된다고 했다. 이 세상은 정말 환희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힘들어한다면 벌써 16세가 60세가 됐다는 것이다. 언제나 16세로 살려면 건강심진법을 통해 재밌게 웃으며 신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

### 웰빙 아닌 웰엔딩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먹는 것이 건강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를 가져온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네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로맨틱한 국민이 되자. 사랑을 할 줄 아는 국민이 되자는 것이다. 둘째, 인간미 있는 국민이 되자. 얼마 전 버지니아 총기사건을 겪은 미국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은 조승희 한 사람의 실수라며 그의 부모를 걱정했다. 우리도 좀 더 폭넓은 세계관을 가졌으면 한다. 셋째, 정의로운 국민이 되자. 사회적인 건강과 정의롭게 살자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넷째, 창조적으로 살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고 나만의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누구는 공부도 잘 한다던데' 하는 교육방식이 가장 나쁘다.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即死 必死即生)'이라고 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는 말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을 부리면 빨리 죽게 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必死'이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베풀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훌륭한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은 전쟁용어가 아니고 '건강용어'이다. 웰빙만을 바라고 욕심을 부리면 '必死'이다. 그러나 '웰엔딩', 현재에 보람을 느끼고 후회없이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보람있고 신나게 보냈다는 생각으로 잠들 듯이 죽을 때도 그렇게 행복한 생각을 하며 죽는 것이 건강한 죽음, 웰엔딩이다. 웰엔딩, 필생즉사 필사즉생 하는 생각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건강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 참승리자를 만드는 리더십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60년의 세월 속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만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무엇보다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가운데, 남북분단의 쓰라린 역사와 최빈곤국이라는 경제적 고통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에 가까운 식민통치와 정치·군사적 독재, 빈곤의 악순환, 후진국의 사회적 약습 등 온갖 성장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 온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하며 새 정부를 출범시킨 지 꼭 1개월이 되는 3월 25일은 4.9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공천 파국의 권력투쟁에 빠져있어 가뜩이나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새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의 틀을 짜면서,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내걸었던 '섬김의 리더십'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퇴색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사회주의를 벗어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티베트 국민의 봉기와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보여주는 불안감은 리더십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또한 부시 행정부가 리더십 결여에서 오는 '리더십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부유럽 등 중·후진국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위기 현상들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일 수가 없다. 문민정부로부터 시작해 민주화의 장정이 15년간 이어지는 동안 역대 국가지도자들이 풀어낸 리더십의 결함들이 정치력의 위기를 불러와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 성장발전의 장애물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부족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어느 특정한 개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리더십의 위기는 그 어떠한 원인에서 오는 위기보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 리더십의 위기는 정치분야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제, 사회, 문화도 리더십의 위기를 맞게 된다. 최근

삼성그룹이 맞고 있는 위기와 새 정부의 인사정책, 개혁정책들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경제적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도 우리는 지금 따갑게 체감하고 있다.

어떻게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위기는 결국 잘못된 인간관과 미숙한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결국은 인간관계기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정치 고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자. 서기 959년 대장수 조광윤(趙匡胤)은 송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 사건으로 자신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자 오랫동안 동거동락한 심우(心友)들을 모두 낙향시켜 말년을 보내게 만들었다. 전공을 세우고 건국에 공이 큰 부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술잔을 돌리게 함으로써 하룻밤에 병권을 내놓게 했다는 일화는 현 정부와 정치권이 깊이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조광윤은 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가까운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관용과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다. 서기 971년 유후주(劉後主)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투항하자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높은 직책에 등용하고 황궁으로 불러 연회까지 베풀었다. 연회에서 조광윤이 직접 술을 따라 주자 유후주는 자신을 죽이려고 술에 독약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폐하,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부디 이 술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조광윤은 그 자리에서 잔에 부었던 술을 단숨에 들이켜 술에 독을 타지 않았음을 몸소 증명했다. 그 후로 유후주는 조광윤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충성스런 신하가 됐다고 한다.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배신하려 하면 막아낼 길이 없다. 가까운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헤치기가 쉽지 않다.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가까운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데 있다.

어제의 정치적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정치적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람은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인간존중의 리더십과 신뢰의 리더십을 가질 때 모두를 참 승리자로 만든다. 조광윤은 역발상으로 참 승리자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예수의 교훈 또한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 기업마케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 \_ 공간마케팅의 부상

'소비자는 이성적인 동시에 감각적인 동물'

소비자들은 이성으로 상품을 비교 분석한 후 감정과 체험으로 상품을 선택한다.

- 벤트 슈미트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



대학생 K양은 약속시간보다 늦는다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전혀 지루하지가 않다. TTL존에서 미니홈피를 확인하며 방명록에 답글을 달고, M존에 들어가 영화를 보고,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사은품을 받고 신상품을 구경하고 나니 약속장소에 도착했다는 친구의 연락이 왔다.

### 감성마케팅의 한계에서 시작된 체험공간마케팅

대중적 기업들의 공간을 통한 마케팅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감성마케팅이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은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광고를 통한 이미지 구축 및 프로모션 확대는 효과측면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4대 매체(TV, 신문, 라디오, 잡지)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중적 기업들은 거대 광고비용을 타겟 고객층을 직접 대면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주요 상업지구엔 문화를 접목한 감성적 브랜드 체험을 강조하고, 기업에 따라 고객의 니즈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LG텔레콤-폰앤편 매장에서 휴대폰과 연관되는 음악, 벨소리, 게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KTF는 기존 멤버프라이자를 리뉴얼 해 체험공간을 마련하였고, SK텔레콤은 T-World와 TTL존을 운영하면서 가입고객들에게 자사 제품 체험은 물론 게임, 인터넷, 도서, 무료 음료, 이벤트 등을 마련하고 있다.

올림푸스코리아는 디지털 카메라 체험 및 고객센터가 가능한 멀티공간 올림푸스존을 운영하고, 레인콤은 아이리버존, 애니콜은 애니콜랜



드, 삼성은 M존, KT는 인터넷 와이브로(Wibro)를 통한 W-style Shop 등을 운영하며 각각 자사 제품의 체험공간 및 기타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태평양의 차 전문점 오설록 티하우스, LG생활건강의 엘라스틴 브랜드관, 신한은행의 The Bank Zone 등도 브랜드 체험공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 천편일률적인 방법 탈피,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 연구 필요

공간 마케팅의 대부분의 구성은 직접적인 형태로서 자사의 제품체함을 주목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의 편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KT&G '문화플래닛 상상마당'의 공간마케팅은 조금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중적이라 볼 수 없는, 혹은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던 비주류 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 장르 자체의 콘텐츠를 가지고 공간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공간과 많은 차이점을



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공간의 활성화나 인지도 측면에서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상마당은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나름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 소비자 욕구 채워줄 지속적인 모델 개발돼야

이러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브랜드 인식에 있어서 통합마케팅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그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



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형태나 공간의 방문객 유입도 측면에서 KT&G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과 브랜드 인식 재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미 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투의 김중수 대표는 "온라인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험공간마케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한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홍보수단은 그 동안의 한계를 드러낸 매체보다 훨씬 앞선 또 하나의 매체로써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아이디어가 그것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말한다.

기업의 마케팅 형태의 변화가 문화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향후 공간 혹은 문화마케팅의 새로운 연구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모델 제시도 함께 필요한 시점이다. **이투**

보인다. 젊은 작가, 신진 작가와의 소통 및 창작지원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분야를 포용하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간구성은 크게 디자인, 공연, 상영관, 갤러리, 스튜디오, 아카데미, 카페 등으로 각 공간마다 창작지원형태를 띠고 있어 젊은 작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아마추어 밴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밴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침체되어 있는 밴드음악을 양성하는데 있어 음악계나 뮤지션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간기획,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맡고 있는 문화마케팅 전문기업 (주)이투에 의하면 하루 평균 1,400여명이 '문화플래닛 상상마당'을 방문한다고 한다. 작년 9월 개관 이후 총 20여만명이 이곳을 방문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문화예술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1.or.kr

자료제공: (주)이투 www.etoexpo.co.kr 상상마당 www.sangsamadang.com



회원 소식

- **웅진그룹(회장 윤석금)**이 사회공익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웅진'을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회사측은 재단법인 웅진이 신현웅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이사장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웅진은 웅진그룹이 출연한 1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30억원씩 장기적으로 10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활동할 계획이다. 재단은 소외 이웃 등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교육, 문화, 복지사업을 펼쳐 '따뜻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웅진은 다문화 가정의 복지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소외계층 자녀 중 각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창호 상천에넌스포츠타운 대표이사**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COEX 오디토리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제 35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오디오 콘텐츠 전문업체인 **(주)복리슨(박창조 대표)**과 **(주)한국액센(박수성 대표)**이 콘텐츠 사용에 대해 계약을 완료하였다. 이번 계약으로 플레이 북(디지털 오디오북)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강의와 서적의 오디오북을 빠른 시간 내에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신문사(김은숙 회장 · (주)마이세셋자산운용 / 김호선 대표이사)**는 2008년 창간 20주년의 해를 맞아 20년사 <여성 IN 여성신문>(Women In the Women's News, WIN)을 출간하였다. 여성신문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독자와 함께 하는 WIN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 김경진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이인(김경진 대표변호사)**을 개업하였다. 법무법인 이인은 민사, 형사, 가사 등 일반 승무를 비롯해 기업법무, 재개발, 재건축, 지적재산권, 중국·베트남 법무 등 다양하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4층
  - Tel. 02-3474-1011
- **이상영 농협대학 경영교문**은 지난 2월, 동국대학교에서 "농촌의 친환경 어미니티(amenity) 자원 활성화를 위한 고객만족 영향 요인 연구"라는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교문은 이

번 학기부터 경희사이버대학에서 '농촌의 다원성과 어미니티'과목을 강의 중에 있다.

- **황수 GE코리아 사장**은 지난 3월 5일 'EBS CEO특강'에 출연하여 '올바른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란 무엇인가'를 강의하였다. 황 사장은 200만 달러 적자인 회사를 2백5십만 달러 흑자로 끌어올린 인물로 유명하며, 이날 방송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쟁적인 환경에서라도 반드시 성과는 내야한다고 피력하였다.
- **(주)대우인터내셔널(강영원 대표이사)**은 지난달 22일 창립 41주년을 맞아 21일 오전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오후에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뮤지컬 관람과 만찬을 준비해 단합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립기념일 당일인 22일에는 300여명의 임직원이 태안반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더욱 뜻깊은 창립기념 행사를 치루었다.
- **비츠로테크(장순상 회장)**는 최근 공동 연구사인 씨앤스페이스가 액화 천연가스(LNG)와 액체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메탄 로켓엔진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테마주로 떠올랐다. 이번 메탄 로켓엔진은 10여년 만에 완전 독자기술로 제품 개발을 이뤄낸 것으로 기존의 1회성·고비용 환경오염 등의 약점을 보완해 약 50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츠로테크는 올 들어 2개월 동안 주가가 60.5% 급등하기도 했다.
- **백현기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국내 첫 베트남 지사 설립에 이어 인도, 러시아 등에도 개척팀을 파견하여 5~6년만에 국내 톱10 자리에 진입하였다. 로고스는 또한 여주에 '1호 민영교도소'설립을 추진하면서 재소자 교화 등 공익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재단법인 우양장학재단(정의승 이사장)**은 지난 2월 23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대학생 81명, 중고생 76명, 초등학생 16명, 탈북자 33명 등에게 2008학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2억9700여만원을 수여하였다.
- **이민주 (주)씨앤엠 회장**은 맥쿼리-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국민유선방송 투자에 2000억원 규모를 채투자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분 61.17%를 맥쿼리-MBK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 1조5000억원 가량의 투자수익을 거둔 후 유망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케이블TV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은 **김우황 부회장** 및 100여명의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데 강북 신사옥 준공 기념식을 지난 1월 31일에 가졌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76-10번지에 지난 2005년 11월부터 착공한 제일화재 강북 신사옥은 전체면적 8937㎡(2703평)에 지상 14층, 지하 4층 규모로 사옥의 건물 디자인은 회사이미지를 의미하는 '1'자를 형상화했다.

•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은** 지난 3월 29일 대한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08년 경영자 대상을 받았다. 중앙대에서 학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경영학회는 '한방의 뿌리를 살려 남녀 노소가 두루 좋아하는 국민 제품을 탄생시킨 점, 원만한 노사관계, 제품 마케팅 능력을 높이 샀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직원들이 자진해 보너스를 반납하자 자신의 주식 10만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 **백진환**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29 동하빌딩 6층  
 · 전 화 : 02-3452-2869 · 팩 스 : 02-501-0470  
 · 홈페이지 : www.bdo.kr



■ **황을문**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사장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2-2 서린B/D  
 · 전 화 : 02-3452-2869 · 팩 스 : 02-501-0470  
 · 홈페이지 : www.seoulin.co.kr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웅진씽크빅	윤석금 회장	4월 1일
정경연한의원	정경연 원장	4월 1일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대표이사사장	4월 2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이태교 석좌교수	4월 3일
제천정신병원	오만식 이사장	4월 6일
(주)한국크리버	남재현 회장	4월 8일
(주)듀오	이충희 사장	4월 10일
성원개발(주)	최우영 사장	4월 13일
(주)도드람B&F	김대성 고문	4월 17일
덕지산업개발(주)	배승호 회장	4월 17일
전능IT(주)	박용팔 회장	4월 19일
영동농장	김용복 회장	4월 20일
삼성석유화학	허태학 사장	4월 29일

신규회원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담동 1601번지 KGIT 상암센터 11층  
 · 전 화 : 02-6393-5202 · 팩 스 : 02-6393-5300  
 · 홈페이지 : www.kcue.or.kr



■ **권오범** 하나은행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4-7 5층  
 · 전 화 : 02-715-2635  
 · 팩 스 : 02-715-2636



■ **장희정** ING생명보험(주) 부지점장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16번지 세인B/D 3F ING 남대문지점  
 · 전 화 : 02-735-0327  
 · 팩 스 : 02-735-0223



■ **배원기**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 전 화 : 02-2112-0260 · 팩 스 : 02-2112-0284  
 · 홈페이지 : kr.kpmsg.com

소모임 소식

• **인경회 2008년 월례 오픈경기**를 지난 3월 25일 포천 아도니스 컨트리



클럽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월례경기는 총17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봄을 알리는 그린에서 운동과 함께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본원에서는

MP3와 골프용품을 협찬했으며, 윤방부 필립메디컬센터 원장이 종합건강검진권을 흥승국 에버그린MST 사장이 골프용품세트를 협찬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협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차랑

을 제공해주신 장찬기 해동재단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지중해클럽(회장 박문서/아주대 교수)**에서는 4월 4일(금)~4월7일(월) 동안 동경미술관 중심으로 답사를 갑니다.

### 연구원 소식

- **민들레영토와 함께 하는 『CEO party -인생소풍길』에 초대합니다.**  
민들레영토(지승룡 사장) 직원들이 직접 준비한 특별한 무대와 소박한 음식으로 회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4월 9일(수) 제18대 국회의원 선출 투표에 참여하신 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 시 : 2008년 4월 9일(수) 오후5시
- 장 소 : 신촌 민들레영토 신관 (T.02-363-6339 / 주차가능)
- 참 가 비 : 초청 (선착순 60명)
- 신청문의 : 02-2203-3500(113) 정성숙 과장

- 본원은 3월 17일(월)부터 5월 26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과기부 산하 KIRD(연구개발인력교육원)의 "최고경영리더십과정" 을 진행합니다. 이 교육은 양병무 원장이 Facilitator를 9주간 진행하며,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조용승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이상기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문유현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 외 총 21명이 참여합니다.

- **양병무 원장 SK에너지 임직원 대상 독서경영 강연**

SK에너지(신현철 부회장)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마인 이야기>를



읽는 독서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양병무 본원 원장을 초청해 "천년제국 로마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신현철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8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특강에서 양 원장은

'독서경영을 통해 SK에너지 전 부문의 업무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로마제국의 창업과 수성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리더십을 조직발전에 접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독서경영을 전담하고 있는 KM지식경영팀의 배철호 과장은 '현재 전 직원들이 5권까지 읽었으며, 이로 인한 업무제안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2009년 초까지 15권 전권을 목표로 독서경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강 후에는 독서경영 제안성과 발표 및 우수사례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 지자체 소식

-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가시적 성과 나타내**

전북 김제시는 지난 3월 20일 류태영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을 초빙해 "21세기 김제 농촌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시작으로 올해 첫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시는 "지난해 2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아카데미를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 쉬지 않고 운영해 왔다"면서 "70여 회에 걸친 교육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의 설계를 도왔으며 시정에도 관심을 갖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날 류태영 이사장은 시 공무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개방 등 갈수록 불리한 농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제 농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업인으로 가져야 할 자세와 의무 등에 대해 역설했다.

- **2008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개강**

전주시는 지난 3월 1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장, 시의원, 자생단체장,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상록 전 삼미그룹 부회장을 초청하여 "21세기 이제 변해야 산다"라는 주제로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열린시민강좌는 지난해 '전주시 열린시민포럼'에 이어 시민평생교육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양

강좌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여론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열린시민강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전주시청 강당에서 운영되며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 **제7회 참진주 아카데미 성황리에 열려**

전주시의 제7회 '참진주 아카데미' 강좌가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강좌에는 민용태 고려대학교 교수의 "나의 삶 행복하게 만들기"란 주제로



행복의 깨달음과 현대인 어떻게 행복한 삶을 가꾸며 살아가야 하나란 내용으로 개최됐다. 참진주 아카데미는 전주시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

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고급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월 1회(넷째주 목요일) 개최되는 프로그램이다.



# 목표설정은 하나의 습관이다

**우**리는 꿈과 목표,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증거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다. 특히 미국 엘엠아이의 창립자인 폴 J. 마이어의 삶은 목표로 가득 차 있다.

그가 성공에 이르렀던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았다. 아주 단순했다. 요약해보면, 그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고, 수없이 많은 장애를 만났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 장애였으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다.

그는 자신이 도달하려는 소망을 글로 적었다. 그리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장단기로 나누어 세워놓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가,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목표와의 거리, 자기의 현재 위치, 자세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매일 매일 목표와 달성계획표를 들여다 보면서 반복해서 신념화했다. 그것이 짧은 시간에 그를 백만장자에 이르게 한 방법이었다.

그는 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선택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반영한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목표보다 내면으로부터 힘과 의지를 더욱 발산하게 된 것이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위대한 성공스토리를 떠받치는 태도인 것이다.

어린 시절 폴 J.마이어는 상상력과 창조력을 통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음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했다. 12세 때 <리버티 매거진>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하는 캘리포니아주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14세 때는 부친의 차고에서 자전거 수리업을 시작하여 300대의 자전거를 팔았다.

16세 때는 농장에서 직접 살구를 따와서 노점에서 팔았는데, 24시간만에 101상자의 살구를 따내 기록을 세웠다. 이는 남캘리포니아의 과수원지대에서 하나의 전설로 되어

있다. 18세 때는 낙하산 부대 체육교관을 하며 윗몸 일으키기를 단숨에 3,500개나 계속해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제대 후 그는 대학에 진학했으나, 불과 90일 만에 그만두었다. 산호세주립대학에서 한 강의실에 200명을 모아놓은 주일식 교육에 회의를 품은 것이다. 대신 그는 도서관에서 동기부여와 심리학에 관련한 서적에 심취했다.

대학을 중퇴하고 곧바로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선망했던 생명보험 세일즈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출발부터 순탄치 못했다. 50여 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찾아갔지만, 어디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최후의 한 회사가 고용해 주었지만, 내향적이고 말더듬이라는 이유로 3주만에 해고되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27세가 되었을 때 백만장자 대열에 끼게 되었다. 결국 보험업계 신화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일단 부를 성취하고 난 이후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도울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즉시 성공동기연구소를 설립했고 곧이어 엘엠아이를 설립하여 자신이 경험한 그 원리를 다른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을 하고, 많은 일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장애를 만들고 단념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고백한다. 결국 목표달성은 자신의 태도를 변화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태**

엄경애 한국엘엠아이(주) 사장



# '한국판 롤콜' 꿈꾸는 여의도통신

정지환 여의도통신 대표기자

**필**자가 대표기자로 몸담고 있는 여의도통신이 출범한지 4년이 흘렀다. 공교롭게도 인간개발 연구원이 매주 목요일 아침 주최하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해 강연 내용을 보도해 온 것과 거의 같은 기간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밀착 마크해 모니터 한 결과를 그 의원을 선출한 유권자들이 구독하는 풀뿌리언론에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유권자와 정치인의 소통(疏通)을 돕는 뉴패러다임 언론매체가 될 것이다."

여의도통신이 지난 2004년 6월 1일 17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출범하면서 다짐했던 약속이다. 당시 여의도통신은 <시민의신문>, <옥천신문>, <뉴스서천>, <평택시민신문>, <울진21>, <수원신문> 등 6개 신문사와 손잡고 '풀뿌리언론의 국회특파원'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1년 전인 2007년 3월 5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입법전문 정치주간지' <여의도통신>을 창간하기에 이르렀다.

## 여의도통신의 4가지 비전과 사명

그렇다면 여의도통신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진행됐던 국회의원(국회사 정치라고 해도 좋다)에 대한 취재와 보도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중앙언론, 지역언론, 시민운동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의 측면을 보자. 우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100여 가지의 특혜가 주어진다.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는 4급 보좌관 등 8명의 비서진도 거느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입법발의, 국정감사, 예산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더욱이 대통령이나 야당 총수 등 '보스'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던 통법부 시대도 막을 내렸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고, 각종 이익집단의 집중적인 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일상적 의정활동이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둘째, 중앙언론의 측면을 보자. 중앙언론에도 국회를 전담하는 기자들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의 중앙당사와 국회의사당의 브리핑룸을 중심으로 취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대표, 원내대표(이전의 원내총무), 대변인 등 당직자나 일부 스타급 국회의원만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보도는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이색적으로 튀거나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검찰에 출두하는 등 '사고를 쳐야만' TV 뉴스 화면이나 일간지 정치면에 등장할 수 있다.

셋째, 지역언론의 측면을 보자. 지역언론(여기서는 도 단위 일간지가 아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함)에서도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지역언론은 워낙 열악한 재정과 인력 구조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보도는 거의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만을 정치 보도의 취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역언론이 상당수에 이른다.

물론 총선의 계절이 찾아오면 현역 국회의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결정하는 유권자와 가장 가까워서 호흡해온 지역언론이다. 하지만 일단 당선만 되고 나면 양측은 3년 11개월 동안 상



### 정치현 기자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및 동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파리정치대학원 세미나과정을 수료했다. <말>,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여의도통신> 등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에 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다수의 논쟁적 기사를 남겼다. 2000년 한국잡지협회가 주는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복음과상황>이 기획한 '주목되는 젊은 그리스도인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101인이 들려주는 성공비결 101가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대의 존재를 거의 까맣게 잊고 만다.

넷째, 시민운동(NGO)의 측면을 보자. NGO는 가장 성실하게 의정감시를 수행해온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NGO의 의정활동은 일정한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의욕적으로 의정감시 결과물은 생산했으니 그것을 유권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일상적 유통망'이 부재했던 것이다. 2004년 4.15총선에서 확인됐듯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방송과 신문이 다뤄주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의정감시의 지속성과 파급력 측면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것이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 맨투맨 감시운동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흐지부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지역언론 '개미군단' 조직할 것

따라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혁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했다. 국회의원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 지역언론의 위상과 역량이 향상된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성숙된다. NGO 의정감시의 대국민 전파력이 강화된다.

아울러 이러한 4가지 효과는 궁극적으로 정치개혁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의 현실적 구현으로 귀결될 것으로 봤다. 이러한 배경과 당위 속에서 여의도통신의 탄생은 그 필연적 이유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여의도통신의 모니터 결과물(생산)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한 지역에서 발간되는 언론에 실리고(유통), 유권자는 그 언론을 지속적으로 보거나 읽은 뒤 선거 때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소비).

바로 이것이 여타 언론의 국회 취재 시스템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여의도통신만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대다수 언론은 취재 결과물을 자신의 매체에 보도할 뿐이지만, 여의도통신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내용을 전국의 지역언론에 공급한다.

한편 6개사로 출발했던 지역언론은 현재 40개사로 늘어났으며, 올해 안에 100개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여의도통신이 약 100만부의 매체 파워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언론은 흩어져 있으면 너무나 미약한 '개미'와 같은 존재이지만 여의도통신을 매개로 하나로 뭉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할 '개미군단'과 같은 새로운 대안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여의도통신>처럼 미국에도 연방의회를 모니터하는 타블로이드판 신문인 <롤콜(Roll Call)>이 있다. 1955년 창간된 이 매체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의회에서 활약하는 로비스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다. 연방의회와 관련된 풍부한 이슈 발굴 기사와 수준 높은 고정 칼럼 때문에 의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 기자와 의회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즐겨 찾는다.

1998년 12월 중순 밥 리빙스턴 당시 하원의장 내정자의 혼외정사 사실을 특종 보도해 유명세를 탄 <롤콜>은 1964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국회의원 야구대회'도 열고 있다.

한국정치의 보다 성숙한 발전을 위해 '한국판 롤콜'을 꿈꾸며 성장하는 여의도통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기 바란다. **김재민**



#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미래를 믿지 마라

Don't trust the future How'er pleasant

우승택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



일러스트 · 이재경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단군시대의 사람들이나, 중국대륙을 지배하는 세력이 우리나라를 넘보던 삼국, 고려, 조선 시대나,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외국과 경쟁하고 생존해야 하는 우리 사람들의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다른 가문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잘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모르는 길은 혼자 갈까? 같이 갈까? 혹은 남이 가는 것 보고 따라서 가볼까? 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저기 가서 불을까? 아니면 여기에 남을까? 등등을 고민하는 것은 꼭 같다.

##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

### 시대를 막론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인간들은 같은 생각을 한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불만족이 다음의 만족이 되리라는 근원적인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듯 인간의 욕망이 동일하게 작용하다 보니 인간이란 똑같은 유혹에 거둬 넘어가는 매우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이러한 실패가 거듭되면서 똑똑한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 그리고 눈이 밝고 현명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은 그 위험을 살짝 건너뛰거나, 다

른 사람의 무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된다. 그러나 그 현명한 사람도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다는 자연의 섭리상 이 지구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똑같은 욕망을 가진 겁 없는 세대들이 또 태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현명한 자와 우둔한 자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2007년 10월, 11월의 시장하락에 이어 2008년 1월, 그리고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형편없이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금융불안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만 안정되면 되는 것일까?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브라질, 인도, 러시아, 베트남), 그리고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 옥수수 펀드, 금 펀드 등 가히 2006년 2007년은 펀드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은행의 예금이 다 펀드로 이동되어서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었다. 땅도, 건물도, 공항도, 철도도, 배도, 석유도, 다 소액 투자자들까지 참여하는 소위 국제화(Globalization)와 증권화(Securitization)의 기간이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기에 앞서 다음의 글을 보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져 주택투기가 과열됐다. 베를린과 비엔나는 그 피해가 도를 넘어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도 엄청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쪽박을 차게 될 상황이었다. 집을 그럴듯하게 지어서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런 이들은 제대로 수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집 값이 내리기 시작했다. 런



미국도 외국인들이 집을 살 경우 비자도 주고, 선거권도 주고, 학비도 싸게 해주고 등의 조치를 취하면 다시 집 값이 올라가서, 빛내서 집산 사람도 살고, 금융기관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경제도 살텐데... 미국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

던에서도 이런 바보짓은 흔하게 일어났다. 소액의 자본만 가진 부동산 업자들이 고리 대출을 끌어다가 날림으로 집을 지어 파는 일이 일상사처럼 벌어졌다"

이 글은 언제 때 이야기일까? 2008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1870년 독일 통일이 지난 후 3년, 1873년의 세계대공황 당시의 이야기로 <19세기의 상업공황>이라는 글에 나오는 대목이다. 그 때의 이야기가 그로부터 133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동일하다니 인간의 욕심과 공포는 시대를 넘나드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만 같다.

### 일시적 호재에 동요하던 세계시장

#### 다시 고통받는 미국

미국이 불안하다. 2000년 11월, 미국이라는 세계 제1의 나라에서 부시와 고어의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선거에 이기는 것으로 결정될 때까지 미국은 한 달간 대통령이 없는 나라였다. 그리고 슈퍼화요일이었던 지난 2008년 2월, 다음 유력 정당인 민주당에서 오바마와 힐러리가 나선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올해 8월까지 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다. 그것은 앞으로 미국이 더 불확실하다라는 징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들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통화량을 공급하고, 일본의 자금이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미국시장에 지원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소비는 살아나고, 그 덕분에 2003년부터 중국, 중동국가,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의 신흥국가들이 세계의 막대한 자금으로 투자와 제조, 그리고 수출을 하고, 미국은 그들의 생산제품을 소비해 주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상승했고, 우리 한국도 '잃어버린 10년'인지, '다시 찾은 10년'인지를 가지고 정당 사이에 논쟁이 불끈 했다. 그만큼 한국 경제나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모든 호재의 시작이었던 미국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방법이라면 우리가 IMF 시절 1가구 2주택, 3주택 마구 사라고 해 놓고 7~8년 후에 보유세, 양도세 등으로 다시 없던 일로 했던 것처럼, 미국도 외국인들이 집

을 살 경우 비자도 주고, 선거권도 주고, 학비도 싸게 해주고 등의 조치를 취하면 다시 집 값이 올라가서, 빛내서 집산 사람도 살고, 금융기관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경제도 살텐데...

### 세상 이치를 깨닫고

####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미국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 위험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 시장이 무엇이고 경제를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이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절에 가서 무릎이 깨지도록 3000배를 한들,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오 주님! 이 어린양을 구원하소서'라며 온갖 기도를 한들,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되살려 3000배 덕택으로, 새벽기도 덕택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며, 시장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지혜로움'을 돌려 받는 마음의 양식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권도중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지혜를 공부하면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다. 지금 당장 다시 큰 성장의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배**

- 다음 호에 계속

### 우승택 센터장

1960년 생으로 한국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MBA과정을 수료했다. CPA항공 ACCTS, 유화증권, 삼성투자자문을 거치면서 99년 우리나라 최초로 PB를 도입 실행한 인물이다. MBC '경제야 놀자'에 출연해 일반인들에게 자산관리 노하우를 전해줬다. 현재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 겸 호텔신라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며,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PB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 경쟁력과 스타플레이어

문용린 서울대 교수 / 전 교육부 장관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유행한 키워드는 단연코 '경쟁력'이란 화두다. 국가경쟁력이란 말에서부터 기업경쟁력은 물론이고 대학과 공공조직에서까지 경쟁력이란 말이 유행한다. 개인 수준에서조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외국어 학원엘 다닌다는 말이 쉽게 쓰일 정도다.

그래서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구도 만들어져서 국가경쟁력의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기업이나 대학의 경쟁력만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구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의 IMD경영대학인데, 매년 국가경쟁력을 수치로 환산해서 등수로 매겨 발표한다. IMD의 경쟁력 지수의 높낮이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 중의 하나다.

기업과 대학평가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경쟁력 평가 기구는 엄청나게 많고, 대학도 여럿이 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을 포함한 기타 공공조직 모두는 경쟁력을 높이기엔 혈안이 된다. 경쟁력이 곧 그 조직의 생존력(survival power)이자 미래 가능성으로 간주되는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경쟁력 키우기를 너무 엘리트 중심 또는 스타플레이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경쟁력의 본질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스타플레이어 영입이다. 연전연패만 하는 스포츠 팀의 구단주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타플레이어를 비싼 연봉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쓰러져 가는 기업을 살리려는 주주들의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유능한 경영 전문가를 비싼 연봉을 주고 영입해 오는 것이다. 아이코카가 제너럴모터스에 경영의 귀재라는 평판 덕분에 특채된 것이 그렇고, 카를로스 곤이 위태위태한 닛산자동차에 영입된 것도 바로 그런 예다.

다행히도 간혹, 스타플레이어의 영입으로 스포츠 팀이나 회사, 그리고 조직이 살아나게 되면, 환호와 찬사는 온통 그 한 사람에게로 모아진다. 그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버텨준 전 직원의 숨은 경쟁력은 외면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한다. 아무리 그래도 스타플레이어는 여러 선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아무리 훌륭한 축구선수도 그라운드에서 혼자 뛰어 이기는 것이 아니다. 10명의 어시스트를 받아서야 비로소 그의 천재성이 빛나는 것이다. 한 명의 스타플레이어가 빛나기 위해서는 10명의 동료선수가 함께 빛나는 수준의 능력을 발휘해 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

야기를 우리는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의 본질은 스타플레이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타플레이어를 가능하게 하는 주변 보통사람들의 능력의 수준에 있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이 스타플레이어였던 것은 그 주변에 그가 그런 스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유능한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영의 박태환이나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그리고 세계무대를 주름잡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10대들은 분명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최고의 스타플레이어다. 그들은 환호와 찬사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을 스타로 키워낸 주변 사람들의 능력 또한 높은 경쟁력의 한 부분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무수한 여성 프로골퍼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한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골프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자랑스런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혁혁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숨겨진 경쟁력, 예컨대 그들 부모의 열정과 희생과 투자 등의 경쟁력에는 주목하지 못한다.

대학의 경쟁력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사용되는 지표가 논문인용지수와 특허출원의 개수다. 즉, 교수나 학생들에 의해서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이나 작품을 만들어 내는가 대학경쟁력의 핵심이다. 세계의 유명대학은 분명히 이런 지표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다. 세계최고의 논문을 산출해 내고 있는 교수와 연구원 때문에 그 학교의 경쟁력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스타플레이어 교수와 연구원은 전체 교수 중 소수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의 교수가 모두 세계일류급의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잘 조화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논문산출 업적이 최고인 교수와 연구원이 있는가 하면, 연구와 논문 집필보다는 가르치는데 최고인 교수도 함께 있는 것에 말이다.

우리는 호수에 떠있는 백조를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자태에 감탄한다. 그러면서도 물 속에 잠긴 두발은 그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으로 물을 헤치고 있다는 것에는 주목하지 못한다. 하버드대학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경쟁력을 자랑하는 것은 물 아래 평범한 교수들의 경쟁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일류급의 논문과 특허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경쟁력일 뿐이다. 그런 경쟁력을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경쟁력, 예컨대 엄청난 수준의 연구비를 끌어 모으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가, 연구보다는 교육에 전념하는 유능한 교수들의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너무 경쟁력을 스타플레이어 중심으로 생각한다. 보통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스타플레이어의 경쟁력도 무용지물임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 **이재경**

# 승리의 V라인얼굴

여자들이여,  
수염발을 세워라!

화장발, 조명발... 이제는 수염발!  
여자들의 아름다운 비밀이 또 하나 늘었다  
V라인얼굴, 광동 옥수수수염차



국내 최초 페트병 무균충진 시스템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광동 V라인얼굴  
옥수수수염차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든 -  
금호고속 전세버스의 목적지는  
당신의 만족입니다

위성을 통해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금호고속 전세버스.  
업계 최초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과  
『교통안전 우수업체』라는 자부심으로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금호고속 전세버스를 만나는 순간,  
전세버스가 다 같다는 생각은 사라집니다.



달리는 First-Class 금호고속 전세버스